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사람들

로마서 9:25-29, 찬송가 324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족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시어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25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27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8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29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고 함과 같으니라

3 본문 설명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구약 호세아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불러 사랑 받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에 면면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기득권이란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남겨두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 두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4 삶의 나눔

-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 한 주간의 삶 중에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5 함께하는 기도

-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가족들끼리 한 주간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7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묵상

1 **묵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